



# 케 리 그 마

KERYGMA

◆ 케리그마(KERYGMA)란 그리스어로 복음선포라는 뜻입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  
전화 (051)583-6314/5  
<http://cafe.daum.net/camillo1004>





김기홍(베르나르도)  
주임신부

## 해외선교후원은 보람된 일

† 찬미예수님!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는 본당의 해외선교 후원회가 창립 된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동안 어려운 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본당신자 모두의 관심으로 이루어낸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너희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열악한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을 도우려는 열의와 희망을 가지고 선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대견스럽고, 진정으로 하느님 사업을 충실히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이 뒤에서 후원하는 곳이 있을 때 더욱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는 교구차원이 아니고 우리본당 자체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므로 본당사제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선교후원회는 창립부터 지난 10년 동안 계속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걸 보면서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본당에서 해외선교지에서 오신 수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자주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는 마음이 뿌듯하고 더욱 이분들을 통해서 선교지의 어려운 실정을 듣고 후원금을 전 할때 마다 사제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의 해외선교후원활동은 복음적인 사도직이고 매우 필요한 보람 된 일입니다. 나의 적극적인 협조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될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올해도 경제가 쉽사리 나아질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조그만한 신앙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조그만 사랑을 만들어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복음선포를 위하여 내게 요긴한 것을 선교사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하여 나도 작은 선교사가 됩시다.

## 해외선교 활동의 전환점이 되어야



이학열(베르나르도)  
본당평협회장

얼마 전 신문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원조 받는 국가'의 지위에 있던 한국이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된다는 기사가 게재된 것을 보는 순간 문득 우리 남산성당의 해외선교후원회가 떠올랐습니다.

남산성당에 해외선교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해외에서 선교 사업을 열성적으로 펼치는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제 단체를 위하여 물적,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환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천주교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해외선교활동도 좀 더 강화되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대변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천주교는 일찍부터 평신도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다, 1793년 신자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조선에 들어온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을 필두로, 1836년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님인 나 베드로 모방 신부님이 조선에 입국하여 본격적으로 전교활동을 펼침으로서 그 세력을 키워 왔습니다.

그 후 나 베드로 모방 신부님은 전교회의 방침에 따라 한국인 성직자 양성을 위해 김 대건, 최양업, 최 방제 세 분을 불러 직접 라틴어를 가르치고, 성직자가 되는데 필요한 덕행을 쌓게 한 후 중국인 신부님 유 방제와 함께 비밀리에 유학을 시킴으로서 한국 천주교의 기틀을 마련 하셨습니다.

그후 나베드로 모방 신부님은 정야고버 샤스탕 신부님, 범앵베르 라우렌시오 주교님과 함께 1839년 새남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해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발전한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시점임에 틀림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나라 천주교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해외선교활동이 천주교의 도움으로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힘이 필요한 곳에 골고루 미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 남산성당 공동체도 그 역할을 다른 공동체에 미루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전개함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드높여야 할 전환점을 마련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산성당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개개인의 조그마한 정성이 모두 합쳐질 때 발휘할 수 있는 힘이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감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강기수(마태오)  
해외선교후원회장

## 해외선교후원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아기예수의 사랑이 올해에도 우리 신자들 가정마다 넘쳐나고 평화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얼마전 우리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지난 활동을 되돌아 보는 기념식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신자들은 오지의 해외선교사들에게 기쁜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가 그동안 어려운 고비마다 지속적으로 활동 할수 있도록 베풀어 준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였으며, 우리들의 관심과 나눔으로 이루어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매일 약 10만명의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지구상 60억 인구중 8억정도가 매일 1달러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조건없이 신앙인의 믿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가 바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문화와 언어, 생활이 전혀 다른 오지의 선교지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해외선교사들에게 우리들은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전 남미 페루의 선교지에서 11년동안 활동하시고, 휴가차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본당에 오신 수녀님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미사 후 수녀님께서서는 “많은 신자가 경건하게 미사를 봉헌하는 모습으로 보면서 눈물이 나서 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매일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라는 말씀에 가슴이 찡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 선교지에서도 아름다운 미사를 봉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간접적인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해외선교라는 씨를 열심히 뿌리면 하느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어 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해외선교 후원은 잠시도 멈추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풀어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축복속에서 나눔의 기쁨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 10년간활동 후원현황

(2000년 8월 ~ 2009년 12월)

총 25개국, 30개 단체에 123회 걸쳐서 현금 1억3천팔백만원과 후원 물품 359박스, 기증 물품 37가 9,000여 만원 지원하였습니다.



### 년도별 지원현황

| 년도   | 지원금액        |
|------|-------------|
| 2000 | 3,500,000   |
| 2001 | 11,000,000  |
| 2002 | 12,000,000  |
| 2003 | 10,200,000  |
| 2004 | 9,350,000   |
| 2005 | 18,100,000  |
| 2006 | 10,000,000  |
| 2007 | 19,000,000  |
| 2008 | 20,100,000  |
| 2009 | 24,700,000  |
| 계    | 137,950,000 |

### 몽골 선교지 돕기 활동 (2006. 7. 23 ~ 8. 12)



### 아프리카 콩고 아볼라





해외선교후원회 10년간 국가별 지원 단체 현황

해외선교후원 10년간 국가별 지원 단체 현황

(2000년 8월 ~ 2009년 12월 31일 까지)

| 국 가    | 지원금    | 지원 단체                                                           |
|--------|--------|-----------------------------------------------------------------|
| 중국     | 1,980만 | 해북진 성당 50만, 적봉교구 200만, 한국예수회 100만, 임덕신부 100만, 예수성심전교 수녀회 1,530만 |
| 페루     | 1,000만 | 인보성체 수녀회 100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800만,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100만            |
| 콜롬비아   | 1,000만 | 예수의 선교 수녀회 1,000만                                               |
| 몽골     | 900만   | 살레시오 수도회 100만,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800만, 후원물품 339박스, 기름물품잇가 9,000여만    |
| 콩고     | 780만   | 사도 성요한 수도회 780만                                                 |
| 네팔     | 700만   | 요셉 수녀회 600만, 사랑의 선교 수녀회 100만                                    |
| 필리핀    | 700만   |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700만                                               |
| 수단     | 600만   | 살레시오 수도회(이태석 신부) 600만                                           |
| 잠비아    | 600만   |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600만, 후원물품 20박스                                 |
| 베트남    | 535만   | 호치민 성당 (이창신 신부 535만)                                            |
| 에콰도르   | 500만   | 박정희 선교사 100만, 예수그리스도 수녀회 300만, 사랑의 시튼 수녀회 100만                  |
| 볼리비아   | 500만   |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500만                                                 |
| 방글라데시  | 400만   | 작은 자매 선교회 200만,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200만                                 |
| 토고     | 400만   | 살레시오 수녀회 400만                                                   |
| 과테말라   | 300만   | 사랑의 선교 수도회 300만                                                 |
| 캄보디아   | 300만   | 사랑의 선교 수녀회 200만, 사랑의 선교 수도회 100만                                |
| 파푸아뉴기니 | 300만   |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300만                                                 |
| 브라질    | 200만   | 작은 예수회 200만                                                     |
| 우간다    | 200만   | 빌요셉 신부 200만                                                     |
| 인도네시아  | 104만   | 윤승식 신부 104만                                                     |
| 파나마    | 100만   | 김무웅(이나시오) 신부 100만                                               |
| 중앙아프리카 | 100만   | 살레시오 수녀회 100만                                                   |
| 동시베리아  | 100만   | 동시베리아 성전 건립기금 100만                                              |
| 앙골라    | 100만   | 살레시오 수녀회 100만                                                   |
| 동티모르   | 100만   | 이기현 군중 교구 100만                                                  |
| 수도회    | 1,200만 |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700만, 성골롬반회 400만, 한국 외방선교회 100만                     |



▲ 몽골의 빈민가옥



▲ 수단 이태석 신부 활동 모습



▲ 네팔 사랑의 선교회 무료급식



## 해외선교후원 10년간 연도별 지원 현황

(2000년 8월 ~ 2009년 12월 31일)

- 2000년 동티모르의 이기현 군종교구, 중국 해북진성당,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살레시오 수녀회(앙골라)를 후원  
(4개국, 4단체, 5회 지원) 총지원금 3,500,000원
- 2001년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인보성체수도회(페루), 중국 내몽고 적봉교구장,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페루), 박정희안나선교사(에콰도르), 작은자매 전교회(방글라데시), 프란치스코전교봉사사회(잠비아), 살레시오(수단) 등으로 후원  
(9개국, 10단체, 11회 지원) 총지원금 11,000,000원
- 2002년 동시베리아 성전건립, 영원한도움의 성모 수녀회(페루), 프란치스코전교봉사 수녀회(잠비아),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살레시오 수도회(수단), 예수그리스도 수녀회(에콰도르), 골롬반수도회, 예수성심전교 수녀회(중국), 작은자매 선교회(방글라데시), 작은예수회(브라질), 샬트르바오로 수녀회(중앙아프리카) 등으로 후원금 및 물품 후원  
(11개국, 11단체, 11회 지원) 총지원금 12,000,000원
- 2003년 예수성심전교 수녀회(중국),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필요셉신부(우간다), 사랑의 선교회(과테말라), 프란치스코전교 봉사 수녀회(잠비아) 등으로 후원  
(6개국, 6단체, 8회 지원) 총지원금 10,200,000원
- 2004년 호치민 성당(베트남),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페루), 한국외방선교 수녀회(방글라데시), 사랑의 선교회(과테말라), 예수성심전교 수녀회(필리핀), 한국외방선교 수녀회(파푸아뉴기니) 등으로 후원  
(6개국, 6단체, 8회 지원) 총지원금 9,350,000원
- 2005년 예수성심전교 수녀회(중국, 필리핀), 한국외방선교 수녀회(파푸아뉴기니), 필요셉 신부(우간다), 살레시오 수도회(수단), 영원한도움의 성모 수녀회(페루), 호치민 성당(베트남), 한국예수회(중국), 골롬반 수도회(브라질), 사랑의 선교회(과테말라), 예수선교 수녀회(콜롬비아) 등으로 후원  
(10개국, 10단체, 11회 지원) 총지원금 18,100,000원
- 2006년 예수선교 수녀회(콜롬비아), 한국외방선교 수녀회(파푸아뉴기니), 살레시오 수도회(몽골), 예수그리스도 수녀회(에콰도르), 호치민성당(베트남), 샬트르바오로 수도회 외 4곳(몽골), 사랑의 선교회(캄보디아), 예수선교 수녀회(콜롬비아), 사도 성 요한 수도회(콩고) 등에 후원금 및 물품 후원  
(9개국, 14단체, 10회 지원) 총지원금 10,000,000원
- 2007년 임덕 신부님(중국연길), 프랑스수녀회고아원운영(네팔), 골롬반남자수도회(빈민구제), 외방선교수녀회(선교지파견 수녀교육), 영원한 도움의 성모(페루), 이창신신부님(베트남) 예수전교수녀회(필리핀), 샬트르성바오로 수녀회(몽골), 사도 성 요한(콩고), 예수선교 수녀회(콜롬비아),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잠비아), 사랑의 선교 수녀회(캄보디아), 예수 그리스도 수녀회(에콰도르), 작은예수 수녀회(브라질 상파울로), 예수선교수녀회  
(14개국, 14단체, 19회 지원) 총지원금 19,000,000원
- 2008년 살레시오 수녀회(토고), 요셉수녀회 학교운영(네팔), 예수선교수녀회(콜롬비아), 한국외방선교 수녀회(볼리비아), 예수성심전교 수녀회(필리핀), 사도성요한 수도회(콩고),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페루), 살레시오 수도회(이태석 신부),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중국서안), 샬트르 바오로 수녀회(몽골)  
(10개국 9단체 16회 지원) 총지원금 20,100,000원
- 2009년 예수선교 수녀회(콜롬비아), 살레시오 수녀회(콩고), 살레시오 수도회(수단, 이태석 신부), 한국외방 선교 수녀회(볼리비아), 김무웅 이야시오 신부(파나마)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몽골), 요셉 수녀회(네팔), 사도 성요한 수도회(콩고),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회(잠비아),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중국), 윤승식 신부(인도네시아) 사랑의 선교 수녀회(네팔), 사랑의 시튼 수녀회(에콰도르), 사랑의 선교 수도회(캄보디아)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페루),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페루)  
(14개국 15단체 24회 지원) 총지원금 24,7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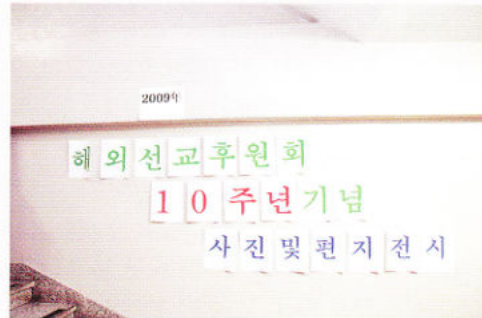
10주년 기념행사 이모저모

## 10주년 기념행사 전시 및 내빈관람

**| 일시 |** 2009년 5월 31일(일) - 기념식, 먹거리 잔치, 사진 및 편지전시



▲ 행사 현수막



▲ 전시장 알림



▲ 사진 및 편지 전시장



▲ 사진 및 편지 전시장



▲ 행사장을 둘러보는 오남주(프리모)신부님



▲ 안락성당 박노진 후원회장 일행



▲ 사도성요한 수도회 장한걸 원장신부 일행



▲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수녀님 일행



## 10주년 기념행사 먹거리잔치 행사장

- 창립 10주년 행사 총이익금 6,420,360원(먹거리 수익금 2,879,360원/ 현금빨랑카 3,541,000원) 후원되었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물품 판매장



▲ 행사장의 김종규 시몬 보좌 신부님



▲ 먹거리 행사장 이레나타 원장 수녀님



▲ 먹거리 행사장



▲ 먹거리 행사장

### 해외선교 후원회 활동에 대한 방송 및 언론 보도 내용

- 2005년 04월 22일 평화방송 "사랑이 있는 세상"에서 방송 됨.
- 2006년 09월 03일 평화신문에 해외선교 활동 소개 됨.
- 2006년 09월 07일 아시아 가톨릭 연합통신에 소개 됨.
- 2006년 11월 19일 해외선교에 대한 인식 확산 제호로 소개 됨.
- 2008년 12월 08일 "사랑이 있는 세상"에 방송
- 2009년 06월 13일 "사랑이 있는 세상"에 방송





## 살레시오 수녀회(토고)에서 보내온 편지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먼저 저의 온 마음 다하여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수녀님들 이름으로 앞장서 애써 주시는 회장님과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를 비롯한 신부님, 수녀님 모든 신자분들께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0주년 행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입금 소식은 수도회 관구 경리 수녀님을 통해 간간히 전해 듣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곳의 통신사정으로 인해 메일 전달이 원활치 않았답니다. 크나큰 감사의 마음 늘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남산성당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충만한 사랑과 신앙의 선물로 한분, 한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라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내년 하반기 쯤에 가지게 될 휴가 때 꼭 찾아 뵙기로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연락 자주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성령 강림 대축일 축하드리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기를 빌면서 ....

안녕히 계십시오.



2009. 5. 27

아프리카 토고에서  
박현옥(세실리아) 수녀 드림





## 예수의 선교 수녀회(콜롬비아)에서 보내온 편지

수신 : 남산성당 김기홍(베르나르도)주임 신부  
참조 : 해외선교후원회 강기수(마태오) 회장님



류위숙(스콜라스티카)  
예수의 선교 수녀회 원장

†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과 평화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교회 창립의 주역이신 성령의 강림대축일을 맞이하여 온 땅에 주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 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신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 회원님들께서 후원회 창립 10주년 행사를 거행하심에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수의 선교 수녀회가 남미 콜롬비아에서 선교 11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니 그동안 꾸준히 도와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녀회가 운영하는 “새삶센터”는 노숙자 급식을 중심으로 노숙자들의 목욕, 세탁, 진료, 교육 및 신앙의 보금자리입니다. 매일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이 센터는 한국수녀가 중심이 되어 한국은인들이 도와주는 성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니 해마다 도움 주시는 남산성당의 후원금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도움 주시던 한국 의약품의 중단으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극빈자로 살고 있고, 빈민지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아직 내전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하루 빨리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귀 본당의 “우리, 함께해요.” 라는 행사가 행복하게 진행되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9. 5. 27

예수의 선교 수녀회  
원장 류위숙(스콜라스티카) 수녀 드림







## 남산성당 해외 선교 후원회원과 회장 강기수 마태오 형제님께



막시밀리안 마리아  
수사신부

평화를 빕니다!

해마다 자선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올해 남산성당 해외 선교 후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 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신자들이 전 세계의 불쌍한 형제들과 어린이들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큰 은총이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회라고 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일에도 충실하듯이 조금만 우리의 정성과 나눔이 큰 사랑으로 열매 맺어 지는 것을 체험하여 기쁨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누는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로 부터 나오는 생명을 주고자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세우기 위해 성모님께 의탁합니다.

남산성당 해외 선교 후원회의 후원자들 여러분!

성령의 강림 대축일을 맞아 하느님의 은총 많이 받으세요.

2009. 6. 수도회 부산분원  
막시밀리안 마리아(안가람) 수사신부  
사도 성 요한 수도회





## GLOBAL 선교



조진호(보나베틀라)  
평협부회장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정, 내 이웃의 복음화는 물론이며, 글로벌 시대에 맞게 전교활동도 국제적 무대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가두선교나 군부대에서의 전교활동은 통계에 의하면 가톨릭은 다른 종교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교에도 가톨릭 신자 특유의 양보심을 발휘하여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국제대회(올림픽 등)에 출전하면 국가와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응원과 후원을 하듯이 우리 가톨릭 교회와 신자들이 복음 전파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들에게 기도와 후원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입니다.

“가장 보잘 것 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해외선교 후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글로벌 선교란, 해외에 나가 목숨을 건 선교사들에게 후방에서 후원활동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도 함으로서 선교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활동입니다.

바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본당의 해외선교 후원회 회원님들은 모두 글로벌 선교를 하고 있는 후방의 선교사들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우리 본당 교우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해외선교 후원회 회원이 되어 글로벌 선교사가 되시길 당부 드립니다.



▲ 차대접 활동



▲ 월모임 개최



## 해외선교 후원은 의무이다.



박영곤(안드레아)  
선교분과장

해외선교라고? 가까운 국내에도 제대로 다 못하면서 무슨 해외까지 나간다고 야단일까? 해외 선교 후원회를 만든다고 신부님께서 동분서주 하시던 그 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비단 나 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분과의 일을 보면서 피상적이거나 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 내용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돈 100원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들과 함께 열악한 생활을 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고생하고 있음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데 해외선교 후원금은 조금 내면서 몇 천원, 몇 만원은 별다른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것을 돌아보면, 남의 일을 돌아 보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자신이 참 한심하고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너희가 말로만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해서 다 내 제자가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자꾸만 나의 마음을 찌르면서 “애야! 너는 나의 계명을 얼마나 따르고 있느냐?” 하고 물어 보시는 것만 같아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너무나 비참했던 일제치하의 식민지 생활과 6. 25 전쟁으로 철저히 파헤쳐져있었던 우리의 과거가 우리들을 그 언제 부터인가 받는 것만 익숙해져 있었나 봅니다. 못사는 나라, 무엇이냐 부족한 나라로만 여겨지는 고정관념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 사고의 틀이 딱딱한 껍질로 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기업인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고 했는데 참으로 선구자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뜻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돌아보고 나아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공존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정말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나누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자신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식적인가?

어느 교부님께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자선이 아니라 의무라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부터라도 나의 생활을 더욱 근검하게 하고 지구촌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사랑의 싹을 조금씩 더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 해외선교 후원회! 파랑새는 있다.



조강현(가밀라)  
후원회 총무

먼저, 해외선교 후원회의 발족이후 10년 동안 한결 같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에서나 대외적으로 여러 후원단체가 있어서 도와 줄 곳이 많다 보니 처음 지향했던 마음이 달라져서 다른 곳으로 관심 방향을 돌리는 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철새(?)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그 때 그 때 마다 느끼는 감정에 따라 움직여 지는 보통 우리네들의 마음 쓰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년동안 지켜본 남산본당의 해외선교후원회 회원들 만큼은 무쇠와 같은 진한 사랑으로 흔들림 없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도움을 청하는 게시판의 짧은 호소문의 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억하시어 꼼꼼이 챙겨 후원해 주시는 회원, 어려운 자신의 형편에서도 과부의 현금 처럼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회원, 수입의 일부를 떼어 특별히 해외선교 후원회에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회원, 일년내내 한푼두푼 모아 키워온 돼지 저금통을 텅하고 안겨 주시는 회원, 같은 종교는 아니지만 매달 빠지지 않고 후원해 주시는 타종교 회원 등등, 이렇게 나눔의 사랑이 큰 회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행운이었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알지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분명 삶의 생존자체가 절박하고 힘든 어려운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베푼 사랑이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을 수 있는 파랑새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  
파랑새는 있습니다.



▲ 볼리비아에서 오신 김경량수녀 본당 방문



▲ 차 대접 활동



2009년 후원회 결산보고, 활동사항

2009년도  
해외선교  
후원회  
결산보고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수 입         |            | 지 출                 |            |
|-------------|------------|---------------------|------------|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 전년도이월금회비입   | 192,850    | 예수선교의 수녀회(콜롬비아)     | 3,000,000  |
| 금액          | 19,136,460 | 살레시오 수도회(수단)        | 2,000,000  |
| 10주년 행사 이익금 | 6,420,360  |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몽골)    | 3,200,000  |
| 은행이자        | 353        | 살레시오 수도회(토고)        | 2,000,000  |
|             |            | 김무웅(이냐시오) 신부님(파나마)  | 1,000,000  |
|             |            | 한국외방선교 수녀회(볼리비아)    | 2,500,000  |
|             |            | 요셉 수녀회(네팔)          | 2,000,000  |
|             |            | 사도 성 요한 수도회(콩고)     | 1,000,000  |
|             |            |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수녀회(잠비아) | 1,000,000  |
|             |            |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중국)     | 1,000,000  |
|             |            | 사랑의 선교 수도회(네팔)      | 1,000,000  |
|             |            | 부산교구 윤승식 신부님(인도네시아) | 1,040,000  |
|             |            | 사랑의 시튼 수녀회(에콰도르)    | 1,000,000  |
|             |            | 사랑의 선교 수도회(캄보디아)    | 1,000,000  |
|             |            |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페루)     | 1,000,000  |
|             |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페루)  | 1,000,000  |
|             |            | 후원회를 위한 미사예물        | 260,000    |
|             |            | 차기이월금               | 750,023    |
| 수입합계        | 25,750,023 | 지출합계                | 25,750,023 |

2009년도  
해외선교  
후원회  
활동사항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월 별 | 후원단체 및 국가                         | 후원내용             |
|-----|-----------------------------------|------------------|
| 2월  | 예수의 선교 수녀회 (콜롬비아)                 | 무료급식, 빈민선교, 의료시설 |
|     | 살레시오 수도회 / 이태석 신부 (수단)            | 빈민선교, 진료소 의료시설   |
| 3월  |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몽골)                 | 빈민선교 및 교육환경 개선   |
| 4월  | 살레시오 수녀회 / 박옥현 세실리아 수녀 (토고)       | 빈민선교             |
| 5월  | 김무웅(이냐시오)신부 (파나마)                 | 빈민선교             |
|     |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이인선(올리아)수녀 (볼리비아)    | 빈민선교, 교육환경 개선    |
|     |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몽골)                 | 빈민선교, 교육환경 개선    |
|     | 요셉 수녀회 / 이멜다 수녀 (네팔)              | 빈민구제 및 학교        |
|     | 사도 성 요한 수도회 (콩고)                  | 빈민선교, 교육환경 개선    |
| 6월  |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잠비아)             | 빈민선교, 의료시설       |
|     | 예수의 선교 수녀회 (콜롬비아)                 | 무료급식, 빈민선교, 의료시설 |
|     |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중국)                  | 빈민선교             |
|     | 윤승식 신부 (인도네시아)                    | 빈민선교             |
| 7월  | 사랑의 선교 수녀회 (네팔)                   | 빈민선교, 고아         |
|     | 살레시오 수녀회 / 박옥현 세실리아 수녀 (토고)       | 빈민선교             |
| 8월  | 사랑의 씨튼 수녀회 (에콰도르)                 | 의료시설, 장애인학교      |
|     | 사랑의 선교 수도회 (캄보디아)                 | 빈민선교             |
| 9월  |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이인선(올리아)수녀 (볼리비아)    | 빈민선교, 교육환경 개선    |
| 10월 | 살레시오 수도회 (수단)                     | 빈민선교, 의료시설       |
|     |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페루)                  | 빈민선교             |
| 11월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 최종숙 아우구스타 수녀(페루) | 빈민선교             |
| 12월 | 예수의 선교 수녀회 (콜롬비아)                 | 무료급식, 빈민선교, 의료시설 |
|     |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몽골)                 | 빈민선교, 교육환경 개선    |
|     | 요셉 수녀회 (네팔)                       | 빈민선교, 교육환경 개선    |



2009년 후원회비 납부현황

2009년 해외선교  
후원회비 납부현황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No. | 성명 / 세례명     | 회비입금    |
|-----|--------------|---------|
| 1구역 |              |         |
| 1   | 김용식 / 바스디아노  | 60,000  |
| 2   | 이현식 / 다니엘    | 60,000  |
| 3   | 조현호 / 벨라도    | 8,000   |
| 4   | 윤정필 / 베드로    | 24,000  |
| 5   | 장정표 / 라파엘    | 75,000  |
| 6   | 김벽연 / 바실리오   | 36,000  |
| 7   | 정진곤 / 바오로    | 10,000  |
| 8   | 강호구 / 제르비노   | 160,000 |
| 9   | 곽근희 / 요세피나   | 60,000  |
| 10  | 박유석 / 요셉     | 50,000  |
| 11  | 박외숙 / 마리스텔라  | 120,000 |
| 2구역 |              |         |
| 12  | 김경란 / 로사     | 36,000  |
| 13  | 이병재 / 요셉     | 36,000  |
| 14  | 송상철 / 안드레아   | 20,000  |
| 15  | 안해숙 / 안젤라    | 36,000  |
| 16  | 구정현 / 엘리야    | 120,000 |
| 17  | 김동훈 / 암브로시오  | 36,000  |
| 18  | 박화춘 / 요한     | 120,000 |
| 3구역 |              |         |
| 19  | 이임자 / 마틸다    | 60,000  |
| 20  | 전동조 / 아브라함   | 36,000  |
| 21  | 최병식 / 안토니오   | 36,000  |
| 22  | 정영혜 / 세실리아   | 60,000  |
| 23  | 한성광 / 레오     | 84,000  |
| 24  | 박기석 / 그레고리오  | 24,000  |
| 25  | 서수원 / 스테파노   | 120,000 |
| 26  | 권영남 / 안셀모    | 14,000  |
| 27  | 유길호 / 시메온    | 160,000 |
| 4구역 |              |         |
| 28  | 천춘식 / 니콜라우   | 50,000  |
| 29  | 안우규 / 유스티노   | 45,000  |
| 30  | 정호기 / 안드레아   | 120,000 |
| 31  | 변상길 / 가시아노   | 50,000  |
| 32  | 신현권 / 아우구스티노 | 24,000  |
| 33  | 김병홍 / 펠릭스    | 6,000   |
| 34  | 박성욱 / 다윗     | 60,000  |
| 35  | 박재호 / 예로니모   | 60,000  |
| 36  | 이미옥 / 마리아    | 45,000  |
| 37  | 강인수 / 미카엘    | 36,000  |
| 38  | 성명경 / 치칠로    | 24,000  |

| No. | 성명 / 세례명     | 회비입금    |
|-----|--------------|---------|
| 5구역 |              |         |
| 39  | 박춘달 / 요한     | 36,000  |
| 40  | 이민원 / 베드로    | 36,000  |
| 41  | 정현식 / 라우렌시오  | 50,000  |
| 42  | 박요숙 / 도로테아   | 60,000  |
| 43  | 박희성 / 다미아노   | 60,000  |
| 44  | 성경훈 / 필립보    | 36,000  |
| 45  | 박정숙 / 엘리사벳   | 32,000  |
| 46  | 강순조 / 아브라함   | 36,000  |
| 47  | 고유건 / 라우렌시오  | 36,000  |
| 48  | 박창언 / 요셉     | 24,000  |
| 6구역 |              |         |
| 49  | 강신수 / 예로니모   | 120,000 |
| 50  | 이봉희 / 오셀     | 60,000  |
| 51  | 손영식 / 로벨도    | 24,000  |
| 52  | 김봉자 / 아니시아   | 120,000 |
| 53  | 김연두 / 야고보    | 25,000  |
| 54  | 정동수 / 대건안드레아 | 60,000  |
| 55  | 최채경 / 글라라    | 60,000  |
| 56  | 허만 / 베르나르도   | 60,000  |
| 57  | 배봉희 / 노엘라    | 36,000  |
| 58  | 김중곤 / 암브로시오  | 36,000  |
| 59  | 이동분 / 프란치스코  | 100,000 |
| 60  | 김위규 / 요셉     | 40,000  |
| 61  | 장상숙 / 마리아    | 24,000  |
| 62  | 정재운 / 율리아노   | 10,000  |
| 7구역 |              |         |
| 63  | 이봉춘 / 세실     | 60,000  |
| 64  | 구인재 / 루피나    | 36,000  |
| 65  | 서영우 / 아오스딩   | 24,000  |
| 66  | 오광연 / 알베르토   | 5,000   |
| 67  | 이승화 / 안토니오   | 24,000  |
| 68  | 이정자 / 막달레나   | 24,000  |
| 69  | 김이경 / 미카엘    | 60,000  |
| 70  | 권철성 / 마르셀리노  | 60,000  |
| 71  | 강영란 / 크리스티나  | 36,000  |
| 72  | 지남숙 / 엘리사벳   | 60,000  |
| 73  | 김영순 / 나탈리아   | 50,000  |
| 8구역 |              |         |
| 74  | 박희찬 / 요셉     | 24,000  |
| 75  | 장두채 / 루까     | 24,000  |
| 76  | 김원화 / 안젤라    | 24,000  |
| 77  | 김정숙 / 로사리아   | 60,000  |
| 78  | 박정운 / F.사베리오 | 120,000 |
| 79  | 전석도 / 이레네오   | 24,000  |
| 80  | 이점수 / 아오스딩   | 160,000 |
| 81  | 이학열 / 베르나르도  | 120,000 |
| 82  | 고영호 / 예로니모   | 60,000  |
| 83  | 오세문 / 안드레아   | 24,000  |



## 2009년 후원회비 납부현황

| No.  | 성명 / 세례명      | 회비입금      |
|------|---------------|-----------|
| 9구역  |               |           |
| 84   | 김기택 / 세례자요한   | 60,000    |
| 85   | 김현민 / 소피아     | 60,000    |
| 86   | 박기봉 / 프란치스코   | 120,000   |
| 87   | 이상은 / 요셉      | 36,000    |
| 88   | 김군태 / 알로이시오   | 24,000    |
| 89   | 장병수 / 그레고리오   | 36,000    |
| 90   | 김형수 / 즈가리아    | 60,000    |
| 91   | 김대원 / 안드레아    | 60,000    |
| 92   | 임영호 / T. 아퀴나스 | 36,000    |
| 93   | 김재환 / 바실리오    | 25,000    |
| 94   | 김의용 / 요왕      | 360,000   |
| 95   | 류해전 / 스테파노    | 120,000   |
| 96   | 김성수 / 프란치스코   | 120,000   |
| 97   | 박영자 / 안젤라     | 24,000    |
| 98   | 이석주 / 프란치스코   | 10,000    |
| 99   | 박기순 / 바오로     | 18,000    |
| 100  | 김동애 / 아델라     | 55,000    |
| 101  | 김완석 / 알퐁소     | 100,000   |
| 102  | 이장희 / 로마노     | 120,000   |
| 103  | 양수남 / 크리스티나   | 25,000    |
| 104  | 이영자 / 마리아     | 24,000    |
| 105  | 김은희 / 마리아     | 36,000    |
| 10구역 |               |           |
| 106  | 이기만 / 도마      | 30,000    |
| 107  | 강기수 / 마태오     | 240,000   |
| 108  | 최경자 / 아네스     | 24,000    |
| 109  | 박종임 / 에스텔     | 120,000   |
| 110  | 전상훈 / 안드레아    | 36,000    |
| 111  | 서정승 / 프란치스코   | 24,000    |
| 112  | 정성길 / 시몬      | 16,000    |
| 113  | 허옥련 / 베로니카    | 24,000    |
| 114  | 서미영 / 아네스     | 140,000   |
| 115  | 김기진 / 바오로     | 48,000    |
| 116  | 김용덕 / 라파엘     | 30,000    |
| 117  | 김일열 / 요한      | 36,000    |
| 118  | 정가희 / 프란치스코   | 36,000    |
| 119  | 박호 / 요한       | 240,000   |
| 120  | 이재수 / 즈가리아    | 30,000    |
| 121  | 김영일 / 하삼바오로   | 360,000   |
| 122  | 문보성 / 미카엘     | 60,000    |
| 11구역 |               |           |
| 123  | 정정순 / 올리아나    | 24,000    |
| 124  | 김영애 / 로마나     | 60,000    |
| 125  | 김준혁 / 베드로     | 95,000    |
| 126  | 김춘명 / 아네스     | 36,000    |
| 127  | 박용득 / 요한      | 550,000   |
| 128  | 강문구 / 요셉      | 60,000    |
| 129  | 이필우 / 요한      | 55,000    |
| 130  | 배명란 / 젤뚜르다    | 36,000    |
| 131  | 강용자 / 루실라     | 36,000    |
| 132  | 박선호 / 요한      | 24,000    |
| 133  | 구중희 / 루까      | 1,240,000 |
| 134  | 오시용 / 프란치스코   | 240,000   |

| No.  | 성명 / 세례명      | 회비입금    |
|------|---------------|---------|
| 135  | 조석제 / 베드로     | 24,000  |
| 136  | 박우진 / 가밀로     | 10,000  |
| 12구역 |               |         |
| 137  | 김옥자 / 벨라멧다    | 60,000  |
| 138  | 신민준 / 레오폴도    | 120,000 |
| 139  | 김귀남 / 루시아     | 120,000 |
| 140  | 김길환 / 아우구스티노  | 55,000  |
| 141  | 박영곤 / 안드레아    | 160,000 |
| 142  | 유동부 / 루까      | 60,000  |
| 143  | 김명복 / 에드몬드    | 110,000 |
| 144  | 고성자 / 리디아     | 60,000  |
| 145  | 전경남 / 데레사     | 120,000 |
| 146  | 김재훈 / 스테파노    | 20,000  |
| 147  | 정춘옥 / 바실리아    | 24,000  |
| 148  | 김완애 / 클라라     | 29,000  |
| 13구역 |               |         |
| 149  | 곽태훈 / 야고보     | 36,000  |
| 150  | 김수자 / 마리아     | 60,000  |
| 151  | 김익태 / 비안네     | 60,000  |
| 152  | 이순자 / 스텔라     | 60,000  |
| 153  | 김정숙 / 마카엘라    | 24,000  |
| 154  | 이분자 / 크리스티나   | 24,000  |
| 155  | 박호조 / 바오로     | 44,000  |
| 156  | 김재섭 / 베드로     | 10,000  |
| 14구역 |               |         |
| 157  | 김영순 / 세라피나    | 60,000  |
| 158  | 황숙자 / 유리안나    | 36,000  |
| 159  | 차무연 / 베드로     | 60,000  |
| 160  | 박정희 / 소피아     | 24,000  |
| 161  | 차경옥 / 수산나데레사  | 28,000  |
| 162  | 김희선 / 세실리아    | 10,000  |
| 163  | 정인자 / 카타리나    | 100,000 |
| 15구역 |               |         |
| 164  | 김강민 / 아우구스티노  | 36,000  |
| 165  | 김남희 / 도미니카    | 60,000  |
| 166  | 김명숙 / 우슬라     | 24,000  |
| 167  | 김옥분 / 카타리나    | 60,000  |
| 168  | 김종학 / 프란치스코   | 60,000  |
| 169  | 성난희 / 아네스     | 60,000  |
| 170  | 강정식 / 올리아노    | 12,000  |
| 171  | 이수택 / 테오노렌마리노 | 90,000  |
| 16구역 |               |         |
| 172  | 이지영 / 유스티노    | 18,000  |
| 173  | 윤정자 / 루시아     | 14,000  |
| 174  | 최종걸 / 대건안드레아  | 500,000 |
| 175  | 이영호 / 요나      | 10,000  |
| 176  | 길창순 / 시몬      | 24,000  |
| 177  | 엄향숙 / 데레사     | 21,000  |
| 178  | 류춘태 / 마리아     | 240,000 |
| 179  | 김영운 / 루돌프     | 24,000  |
| 180  | 금병호 / 요한      | 18,000  |
| 181  | 김대중 / 비오      | 20,000  |
| 182  | 황영진 / 프란치스코   | 60,000  |
| 183  | 윤숙옥 / 모니카     | 30,000  |
| 184  | 김선자 / 아네스     | 60,000  |



## 2009년 후원회비 납부현황

| No.         | 성명 / 세례명     | 회비입금    |
|-------------|--------------|---------|
| <b>17구역</b> |              |         |
| 185         | 전순현 / 안나     | 120,000 |
| 186         | 하해웅 / 시몬     | 7,000   |
| 187         | 이정희 / 데레사    | 48,000  |
| 188         | 한창열 / 알렉산델   | 36,000  |
| 189         | 김원기 / 분도     | 60,000  |
| 190         | 김광원 / 스테파노   | 60,000  |
| 191         | 지은화 / 아녜스    | 20,000  |
| <b>18구역</b> |              |         |
| 192         | 박종근 / 알렉시오   | 30,000  |
| 193         | 조일제 / 마르코    | 120,000 |
| 194         | 김영남 / 베드로    | 120,000 |
| 195         | 설순심 / 안나     | 60,000  |
| 196         | 김옥 / 루카      | 240,000 |
| 197         | 정재식 / 프란치스코  | 60,000  |
| 198         | 박주희 / 마리아    | 5,000   |
| 199         | 박정엽 / 스테파노   | 24,000  |
| 200         | 이철주 / 그레고리오  | 60,000  |
| 201         | 김성환 / 요셉     | 273,460 |
| 202         | 김양수 / 요한     | 5,000   |
| 203         | 유사순 / 마르타    | 24,000  |
| 204         | 안석수 / 아오스딩   | 120,000 |
| <b>19구역</b> |              |         |
| 205         | 이세영 / 리노     | 60,000  |
| 206         | 김영희 / 마르타    | 60,000  |
| 207         | 박해정 / 프란치스코  | 24,000  |
| 208         | 이국수 / 미카엘    | 120,000 |
| 209         | 강희선 / 아타나시오  | 60,000  |
| 210         | 이부식 / 안토니오   | 120,000 |
| 211         | 나모성 / 시몬     | 60,000  |
| 212         | 설상국 / 스테파노   | 60,000  |
| 213         | 김갑용 / 요한     | 60,000  |
| 214         | 김정자 / 안나     | 24,000  |
| 215         | 우항기 / 데레사    | 60,000  |
| 216         | 조순량 / 라파엘라   | 24,000  |
| 217         | 김구용 / 요셉     | 24,000  |
| 218         | 정철호 / 다니엘    | 5,000   |
| 219         | 방상청 / 마르코    | 44,000  |
| 220         | 김영희 / 카타리나   | 36,000  |
| 221         | 김무남 / 아우구스티노 | 34,000  |
| 222         | 김성덕 / 대건안드레아 | 60,000  |
| 223         | 김동수 / 알로이시오  | 120,000 |
| 224         | 김병익 / 미르띠노   | 60,000  |
| 225         | 강외숙 / 올리아나   | 2,000   |
| 226         | 정의봉 / 알베르토   | 26,000  |
| <b>20구역</b> |              |         |
| 227         | 조강현 / 가릴라    | 125,000 |
| 228         | 권오기 / 그레고리오  | 60,000  |
| 229         | 손상갑 / 라파엘    | 20,000  |
| 230         | 이태현 / 프란치스코  | 10,000  |
| 231         | 신경준 / 시몬     | 30,000  |
| 232         | 손찬곤 / 바오로    | 24,000  |
| 233         | 최준대 / 시몬     | 60,000  |
| 234         | 최민혜 / 미카엘라   | 33,000  |
| <b>21구역</b> |              |         |
| 235         | 우재권 / 요셉     | 170,000 |
| 236         | 이종기 / 라우렌시오  | 60,000  |

| No.         | 성명 / 세례명      | 회비입금                |
|-------------|---------------|---------------------|
| 237         | 장창오 / 요한      | 60,000              |
| 238         | 김종자 / 엘리사벳    | 60,000              |
| 239         | 박태영 / 세례자요한   | 36,000              |
| <b>22구역</b> |               |                     |
| 240         | 이희경 / 글라시아    | 24,000              |
| 241         | 이상숙 / 수산나     | 30,000              |
| 242         | 이경희 / 소피아     | 24,000              |
| 243         | 김혜자 / 엘리사벳    | 60,000              |
| 244         | 박보영 / T. 아퀴나스 | 120,000             |
| 245         | 김대경 / 바오로     | 48,000              |
| 246         | 김수동 / 라파엘     | 36,000              |
| 247         | 이덕순 / 루시아     | 18,000              |
| <b>23구역</b> |               |                     |
| 248         | 조진호 / 보나벤투라   | 120,000             |
| 249         | 최병림 / 요한      | 36,000              |
| 250         | 장종희 / 마리아나    | 60,000              |
| 251         | 이숙중 / 실비아     | 36,000              |
| 252         | 이복률 / 바오로     | 60,000              |
| 253         | 김영찬 / 시몬      | 50,000              |
| 254         | 김정희 / 실비아     | 55,000              |
| 255         | 박봉원 / 엘리지오    | 240,000             |
| 256         | 신수희 / 올리아     | 21,000              |
| 257         | 박형욱 / 마르셀리노   | 18,000              |
| <b>24구역</b> |               |                     |
| 258         | 원덕희 / 베드로     | 15,000              |
| 259         | 이종길 / 에밀리오    | 120,000             |
| 260         | 고준태 / 알비노     | 30,000              |
| 261         | 이상관 / 그레고리오   | 120,000             |
| 262         | 박진익 / 마르코     | 160,000             |
| 263         | 이희영 / 베드로     | 120,000             |
| 264         | 신종문 / 루치오     | 24,000              |
| 265         | 이은영 / 글라라     | 120,000             |
| 266         | 김미향 / 안젤라     | 125,000             |
| 267         | 강동석 / 알로이시오   | 120,000             |
| 268         | 윤양현 / 안토니오    | 60,000              |
| 269         | 강철중 / 그레고리오   | 36,000              |
| 270         | 유석준 / 도미니카    | 45,000              |
| 271         | 이갑승 / 라파엘     | 120,000             |
| 272         | 김찬두 / 야고보     | 120,000             |
| 273         | 이영화 / 루시아     | 60,000              |
| 274         | 홍경수 / 안드레아    | 60,000              |
| 275         | 황익 / 스테파노     | 10,000              |
| 276         | 박태민 / 다니엘     | 80,000              |
| <b>기타구역</b> |               |                     |
| 278         | 최영수 / 요셉      | 36,000              |
| 279         | 문주덕 / 사도요한    | 20,000              |
| 280         | 송기윤 / 그레고리오   | 10,000              |
| 281         | 손연주 / 세실리아    | 30,000              |
| 282         | 류근요 / 사도요한    | 18,000              |
| 283         | 최원필 / 안젤라     | 24,000              |
| 284         | 김영아 / 아니타     | 50,000              |
| 285         | 손태목 / 필립보     | 40,000              |
| 286         | 이영옥 / 안나      | 35,000              |
| 287         | 서옥숙 / 아녜스     | 20,000              |
| 288         | 바다의 별 Pr.     | 20,000              |
| <b>총합계</b>  |               | <b>₩ 19,136,460</b> |





##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콰도르)

존경하는 김기홍 베르나르도 신부님과 강기수 마태오 후원회장님,  
저는 사랑의 씨튼 수녀회 김경순(아네스)수녀입니다.

사랑의 씨튼 수녀들이 파견된 “에콰도르” 선교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에콰도르” 선교지에 대해 소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서 4번째로 작은 에콰도르(Ecuador)는 적도에 걸쳐 있으며, ‘적도의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공식언어는 스페인어이고 종교는 95%가 가톨릭이며, 개신교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의 씨튼 수녀회가 “에콰도르” 선교지에 파견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호주’ 국적을 가지신 신부님이 에콰도르에서 병원과 특수장애인 학교를 시작하시고 발전 시켰는데, 이 신부님께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부님과 함께 일하던 한국 국적의 ‘여자 선교사’ 한분도 나이가 많아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곳을 인수할 수도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느님의 섭리는 “사랑의 씨튼 수녀회”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저희 수녀회에서는 2008년 2월 4명의 수녀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의 사도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병원 : 열악한 위생 시설로 모자 사망률이 높아서 시작한 병원 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곳에서는 종합병원 수준이며 24시간 개방되어 운영됩니다.
2. 특수 장애인 학교 : 청각장애인 20명, 다운 증후군, 뇌성마비, 정신지체 등을 포함하여, 총 70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11명의 선생님과 2명의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3. 본당 사목활동 협조 : 세례를 받았으나 교리를 잘 모르고, 혼인성사도 받지 않은 분이 많아 미사는 참석하지만 영성체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 공소는 약 100여 곳이 있습니다.)

사랑의 씨튼 수녀회가 이제 시작한 선교지, 여러 면에서 열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에콰도르 선교지에 남산성당의 교우님들이 보여 주신 사랑의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씨튼 수녀회 후원회 담당  
김경순(아네스)수녀 올림







## 요셉 수녀회(네팔)

사랑하는 후원회 회장님께

남산성당 후원회 회원님들께서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회장님과 남산성당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들의 기억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네팔 카트만두는 몹시 춥습니다.

이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고

도시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어린 학생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매우 가난하고,  
주로 노동자들 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남산성당 후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 도움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009. 12  
네팔 카트만두 고다바리에서  
요셉 수녀회 이멜다 수녀



## 콩고 '아볼라' (아프리카)



사랑하는 신부님과 후원회장님께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고아인 RUTH LUSALA MBOTE의 위장 수술을 위해  
보내 주신 재정적인 도움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술에 도움이 되도록 600불을 보내 주신 후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9. 2. 3 아볼라  
추신 : 소식이 늦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몽골리아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몽골)

존경하올 김기홍 베르나르도 신부님,

성탄과 새해에 복을 많이 이 받으십시오!!

평화와 기쁨을 가득히 주시는 주님의 성탄절과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귀 본당의 해외 선교 후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귀 선교후원회에서 특별히 이곳 극빈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바자회 등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하여 주심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즘 이곳은 아주 춥습니다. 그동안 신종플루의 위험으로 수업을 중단하고 방학에 들어갔다가, 이달 7일 월요일부터 다시 개학을 하였습니다. 학교는 이내 학생들의 기쁨의 목소리로 가득 차고 활기가 넘치는군요. 아침 7시경이 되면, 벌써 아기 곰처럼 방한복으로 무장한 아이들이, 불이 빨갛게 얼은 채로, 발을 동동구르면서 교문을 두드립니다. 따뜻한 교실에서 몸을 녹이고, 씻고, 먹고, 양치질 하고, 공부하고, 뛰놀면서 즐거운 하루를 지내며 커가고 있습니다.

몽골리아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7배나 되는 큰 대륙에, 인구는 3백만이 채 안되는 나라로서, 빈부의 격차가 대단히 크고, 엄동의 나라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학교, 본당들에 가난한 어린이, 청소년, 소녀들이 저희가 돌보는 대상들입니다. 대부분 “젤”(몽골 전통가옥 : 천막집)촌에서 살고 있고, 식사도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주로 이러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년에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 울란바토르 샬벨 학교가 주택 건물의 가로 12m, 세로 12m 크기로 1층과 2층의 공간, 교실 3개의 좁은 공간에서 오전 오후로, 125명의 학생들이 붐비고 있으며, 긴 겨울 동안 뒹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를 확장 할 목적으로, 옥상에 강당을 짓거나, 학교 부지를 찾아서 매입하여 학교 건축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새해에도 저희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시면 학교 건립을 위하여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은인들의 사랑과 온정을 기다립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님께서 사랑을 드리면서 신부님과 후원회 여러 은인들에게 새해에도 축복을 듬뿍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 샬벨초등학교 학생

2009. 12  
샬벨 초등학교 교장  
이난영 글라라 수녀  
몽골리아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원장  
박진영 미셀 수녀





## 한국외방선교 수녀회(볼리비아)

### 희망의 물꼬를 트는 일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있었던 3년만의 선교사 본국 휴가를 마치면서 8일간의 피정을 가졌고 침묵과 기도 가운데서 “수도자 그리고 선교사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인 ‘교회의 선교 사명’과 ‘봉헌생활’을 텍스트 삼아서 성독(Lectio Divina)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령의 빛 안에서 그 핵심적인 가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말과 행동으로 선교사이기 전에 교회는 그 존재 양상으로 선교사가 된다” -RM, n22 그렇다면 “존재양상 혹은 존재로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질문이 피정 내내 저를 따라 다녔고, 마침내 회칙 “봉헌생활” 중에서 ‘수도자의 생활방식의 표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동화(Configuration)해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내용 안에서 그 명료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는 의당 그리스도를 향한 선교사 자신의 끊임없는 회심의 삶이 없이는 실제로 ‘말함’이라는 어떤 외적활동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제 내면안에 진리의 메아리를 만들고 싶었던 피정의 구체적인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3월 4일 귀국해서 3개월 동안 전국 여덟개 본당을 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했던 일은, 저에게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주었습니다. ‘해외선교’란 파견받은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느님 백성의 협력으로 이루어내는 ‘신앙의 꽃’이라는 그 아름다운 진리 말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만날 수 있었던 관대하고 마음이 열려진 선의의 분들, 과부의 땀같은 귀한 희생을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께서 베풀어 주셨던 따뜻한 격려와 위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기억이 되어 저희들이 용기있게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해 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물심양면으로의 협력은 그 자체로서 ‘하느님 나라의 선포’와 ‘예수사건’으로 집약되는 ‘기쁜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며, 선교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희망의 물꼬를 터 주는 일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물질에 앞서 하느님께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더 절박함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번 휴가기간 동안에 가졌던 모금활동과 만남들과 내적 체험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의탁을 배우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 주었고, 수 많은 ‘교의 벼’들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남산성당 주임신부님과 해외선교 후원회 회장님과 그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볼리비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저희도 감사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09. 08. 07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볼리비아 근차맘바 공동체  
이(울리아)수녀





##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중국)

### 예수성심의 사랑안에서

그분 비움의, 낮아짐의 겸손을 배우고답아가고자 애써야 할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허라되었음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인사드립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눈이 내려 이곳의(이곳은 그다지 많은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임) 모든 것을 푹푹 얼게 만들었던 추위가 물러가고 요즈음 날씨가 따뜻해져 잔뜩 움크렸던 어깨를 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께 직접 소식을 전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그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늘 조용히 소리없는 희생과 봉헌으로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시잘 할 수도 이어 갈 수도 없는 일이기에 형제, 자매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나를, 우리를 이곳에 존재케 합니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입고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 또한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들을 대신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매일, 매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기억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할 시간에서는 이미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가치관에서 고민하고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기에 무엇보다 이곳에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저희에게는 그분께 간구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희의 희망이 그분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곳에 있는 저희 또한 여러분들이 뜻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부끄럼 없이 그분을 맞이 할 수 있기를, 또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분들이 여육의 건강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2009년 12월 대림 첫 주에  
가깝지만 먼 곳 (중국)에서  
이두레(바오로) 수녀 드림



## 2009년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소식

기간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2009.2.08 그동안 운영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태익(라우렌시오) 형제님께서 사임하고 박영곤(안드레아)형제님과 최봉선(라파엘라)자매님께서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수고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2009.2.19 망미성당으로 부임하신 오남주(프리모)신부님을 운영위원들과 함께 방문인사를 드렸습니다.
- 2009.4.17 해외선교후원회 창립10주년 기념행사에 방법과 날짜를 결정하였습니다. 해외선교기금 마련,우리함께해요 먹거리장터개최 일시: 2009.5.31(일) 오전9시부터~ 내용: 해물파전,비빔밥,주류등 먹거리잔치와 선교지 활동사진 및 감사편지전시
- 2009.4.26 요한썩크 사업장을 운영중인 박용득(사도요한) 형제님께서 후원회로 3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4.27 해외선교후원회 창립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준비사항 보고를 본당사목회장을 모시고 운영위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 2009.5.17 부산교구 소속으로 남미 파나마에서 사목중인 김무웅(이냐시오)신부님께서 본당을 방문하여 주임신부님과 함께 그곳의 열악한 선교현황을 들었고 후원금 1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 2009.5.22 사목협의회에 후원회장이 참석하여 해외선교후원회창립 10주년기념행사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2009.5.30 남미 볼리비아에서 선교활동 중인 한국외방선교수녀회의 이인선(율리아)수녀님께서 본당을 방문하여 주임신부님과 운영위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그곳의 선교활동 소식을 듣고 후원금 15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 2009.5.31 해외선교후원회 창립10주년행사로 기념식과 먹거리 장터를 개최하여 결산결과 먹거리수익금: 2,879,360원, 현금빨랑카: 3,541,000원이 되었습니다. 당일 행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사도성요한수도회원장 장한결신부님, 망미성당 오남주(프리모)신부님, 선교수도회 원안드레아수사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볼리비아 이인선(율리아)수녀 일행 본당 방문



10주년 기념행사장 오남주 신부 일행



10주년 기념행사장



후 · 원 · 회 · 소 · 식

님, 예수성심전교수녀회원장 조숙제 수녀 외4명, 안락성당해외선교후원회장 박노진외4명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주임신부님과 인사를 나누고 축하해 주었으며, 남미 콜롬비아의 예수성심교회총원장 류위숙(스콜라스티카) 수녀님, 아프리카 토고의 살레시아수녀회 박세실리아수녀님께서 축하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2009.6.07 해외선교후원회 창립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소개가 가톨릭신문과 평화방송 인터넷에 소개되어 많은격려가 있었습니다.
- 2009.6.13 평화방송라디오 “사랑이있는세상” 프로에 후원회장님께서 출연하여 10주년행사와 해외 선교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 2009.7.17 오남주(프리모)신부님 영명축일 인사차 운영위원들과 함께 망미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 2009.8.02 예수성심전교수녀회의 해외선교지에서 휴가차 본원에 오신 페루의 신혜금(안드레아) 수녀와 베트남의 김월춘(마르셀)수녀, 중국의 이두레(바오로)수녀를 후원회장과 총무님께서 방문하여 오찬을 겸하여 선교지 활동사항을 들었고 계속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2009.8.31 남미의 에콰도르에 파견되어 진료소, 장애인학교 등으로 활동중인 사랑의씨든 수녀회 원장수녀님께서 선교지 도움을 요청하여 1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 2009.9.20 구중회(루카)형제님께서 해외선교후원회로 10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10.12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원 피정에 강기수(마태오)회장님이 참석하여 “해외선교후원은 나눔의 열매이다.” 주제로 강의하셨습니다.
- 2009.10.15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해외선교후원에 대한 실태조사 요청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 2009.11.6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초등학교와 선행유치원을 운영중인 샬트르 성 바오로수녀회의 박진영(미셸)수녀님께서 업무차 오셔서 김영남(베드로)부부, 총무, 후원회장이 면담하여 그동안의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선교지활동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 2009.12.8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활동중인 프란치스코 전 교봉사 수녀회 나네오노라수녀님께서 업무차 부산에 오셔서 오남주(프리모)신부님과 후원회장께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 2009.12.19 남미 페루에서 활동중인 영원한도움의 성모 수녀회 최종숙(아우구스타)수녀님께서 휴가차 주임신부님을 방문하고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2009.12.30 본 케리그마 소식지제작을 위해 빨랑카등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후원해주신 사업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몽골 박미셸 수녀님 한국 방문



## 해외선교기도문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문

자비로우신 하느님아버지  
당신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가 돕고자 하는  
선교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의 모임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 하오니  
아직도 당신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통 받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또한 저희가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저희의 활동이 결코,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기도와 자선과 봉사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며  
이 세상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의 모임이 더욱더  
충실히 지기를 비오며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지극히 사랑하옵 예수님,  
은인들을 기억하시어  
선교 사업을 위하여 도와주소  
모든 은인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가 하는 일

- 범 교구적 해외선교와 국내 해외선교기관을 후원합니다.(선교회, 수도회)
- 해외선교 후원회 회원은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본당 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후원 회비는 월 2,000원 이상이고, 본당 사무실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 매월 첫째주일 오전 9시 미사에는 해외선교 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봉헌이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로 문의 바랍니다.

### 해외선교 후원회 운영위원

| 구 분  | 성 명   | 세 레 명   | 연 락 처         | 핸드폰           |
|------|-------|---------|---------------|---------------|
| 지도신부 | 김 기 홍 | 베르나르도   | 583-6317      |               |
| 회 장  | 강 기 수 | 마 태 오   | 514-8158      | 011-848-2461  |
| 총 무  | 조 강 현 | 가 밀 라   | 581-5770      | 011-9521-8024 |
| 위 원  | 김 명 복 | 에 드 몬 드 | 516-5826      | 010-6712-5826 |
| 위 원  | 이 학 열 | 베르나르도   | 581-7381      | 011-863-3111  |
| 위 원  | 조 진 호 | 보나벤투라   | 517-4517      | 011-9516-0119 |
| 위 원  | 박 영 곤 | 안 드 레 아 | 070-8801-4730 | 010-3585-4730 |
| 위 원  | 박 정 운 | 프란치스코   | 904-1657      | 011-9399-1657 |
| 위 원  | 박 우 진 | 가 밀 로   | 070-7124-9423 | 018-561-6682  |
| 위 원  | 박 영 순 | 마 리 아   | 581-8727      | 011-9314-8728 |
| 위 원  | 김 남 희 | 도 미 니 카 | 517-8991      | 010-6757-8991 |
| 위 원  | 최 봉 자 | 라 파 엘 라 | 583-1565      | 011-9550-3603 |





## (주)금정소방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소방기구 도·소매★

대표이사 조진호 (보나베포라)  
장환옥 (마리아)

011-9516-0119  
051-514-0119

금정구청 후문

## 다비치안경

두실점

대표이사 김완석 (알폰소)  
김임영 (루피나)

051-516-4470  
010-2862-2754

두실 지하철 3번 출구

## 대신종합상사(주)

★각종 건축자재 판매★

대표이사 이재수 (즈가리아)  
박송월 (엘리사벳)

011-850-5265  
051-515-7405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 린노알미늄(주) (주)삼우EMC

★알루미늄 압출,  
자동차 부품, 플랜트★

대표이사 이세영 (리노)  
조순옥 (비비안나)

055-345-6787  
011-813-3316

## 보신탕 원 조 박 달 집

★삼계탕, 보신탕★

대표 임완규 (가비노)  
박외숙 (M.스텔라)

051-515-9879  
010-7148-9879

금샘로 외식타운 內  
우성@ 뒤 산복도로

## 부 용 탕

★대중사우나, 군모닝헬스★

대표 김양수 (요한)  
조귀옥 (카타리나)

051-513-0033  
011-862-6376

선경1, 2차 APT 후문

## 요한썩크 신자 할인

★신발장, 진열장,  
불박이장, 책장★

박용득 (사도요한)

010-7546-8757  
070-8137-8757

(두실 지하철역 7번 출구)

## 봉계농장숯불

★생고기 숯불★

대표 김기진 (바오로)  
신영희 (막달레나)

019-607-2082  
051-583-2002

구서 2동 두실탕 옆

## 족 사 모

★족발, 수육, 감자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영자 (세실리아)

051-502-5235  
011-9330-0027

## 석 산 횃 집

★자연산 회, 물회★

박유석 (요셉)  
윤명자 (요셉피나)

011-572-8398  
051-518-6686

## 보원당건강원

★건강중탕일체  
홍삼엑기스★

황임선 (마리아)

051-583-3078  
011-9543-5207

## Nanolive 나노리브

[www.nanolive.co.kr](http://www.nanolive.co.kr)

천연화장품, 천연세제,  
아토피 피부관리

조신행 (토마스)  
박종임 (에스텔)

010-8855-2644  
019-582-7777